

주민이 유치한 화장장 2010년 착공

강진군 봉안시설 1,500㎡ 규모... 내년 초 계획 확정

전국 최초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고 있는 강진 화장장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진군은 화장장 예정지의 주민 합의를 전제로 오는 2010년 공사에 착수해 2012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장단과 단체회원, 주민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장사정책 및 화장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초 강진군 이장단이 주민 7천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화장장 유치 건의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황주흥 강진군수도 최근 지난해 문을 연 충남 흥성 추모공원을 견학하는 등 화장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10년 화장장 착공을 목표로 장사시설 증장기 수립

계획 및 타당성 용역 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관련법에 따라 내년 초 화장 시설 계획 수립을 거쳐 후보지 공모, 조례제정,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화장장 규모는 봉안시설 1천 500㎡, 장사시설 1천㎡, 자연장지 500㎡ 등 총 3천㎡이며, 화장로 3기에서 1일 12구의 화장이 가능하다.

최경희 강진군 화장장 유치 담당은

“대표적 기피시설로 인식돼온 화장장 유치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하고 나섰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면서 “순회교육 등을 통해 주민공감대를 쌓고 용역결과 검토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 화장비율은 2004년 23%, 2005년 27.2%, 2006년 32.7%, 2007년 3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등 시 단위 4곳에 화장시설이 설치돼 운영중이다. /강진=박진표기자lucky@



이주 여성들의 '한국 삶' 담았어요

담양 명지미술관서 '컬러풀 마인드'전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들의 애환을 담은 그림들이 농촌 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다. 담양군 고서면 명지미술관에서는 지난 27일부터 이주여성들이 미술 치료 프로그램 과정에서 그린 그림과 글들을 모아 '컬러풀 마인드(Colorful Mind)'전이 열리고 있다. <사진>

내년 1월 5일까지 계속 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이주여성 40명이 화가이자 미술치료사인 주홍 씨의 지도로 무지개색의 도미노 패에 자신들의 마음을 담은 3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표현을 즐겁게 이끌어내고 미술을 통해 소

통할 수 있도록 담양군이 마련한 '스토리 텔링'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기쁨과 행복, 감사 등을 주제로 그림과 글씨를 통해 마음을 표현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농이를 통해 가족, 이웃과 소통하고 삶의 애환을 나눌 수 있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노정훈기자cjob17@

영광 청보리 한우·태양초 고추·유정란 위생 관리 품질인증 획득

청보리 한우와 태양초 고추 등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대거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새롭게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을 획득한 품목은 ▲영광축협 '청보리한우' ▲아울림영농조합법인 '토종닭 자연방사 유정란' ▲고추마을영농조합법인 '태양초고추·고춧가루' ▲굴비나라' 굴비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안전성 검사와 위생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품질 관리를 받아왔다.

전남도는 최근 통상상표심의위원회를 통해 26개 업체 55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도지사 품질인증을 허가했으며 이번엔 인증을 받은 우수 농축산

물은 3년간 해당 상표에 대해 품질 보증을 받는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영암 소방서 안전센터 준공

영암소방서 '119안전센터' 요원들의 보급자리가 마련됐다.

영암소방서는 29일 영암읍 화문리 262번지 영암중합고등학교 맞은편에 새로 지은 안전센터 준공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연 면적 570㎡, 2층 규모로 사무실과 대기실 등을 갖춘 이 안전센터는 펌프차, 구급차 등 5대의 긴급차량과 소방관 15명이 24시간 상주 대기한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불우이웃 함께하는 경찰

원도경찰서(서장 정광록) 읍내파출소가 관내 불우이웃 돌기에 앞장서고 있다. 읍내파출소(소장 김옥식) 직원들과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윤두석), 자율방범대원(대장 최광호)들은 지난 29일 원도를 신기리 3가구에 연탄 300장을 전달했다. 김옥식 소장은 “한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펴는 감성치안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광산구 여성정책 '으뜸'

여성보호 지원 조례 등 우수구 선정 잇단 수상

광산구가 여성정책 우수구로 잇따라 선정됐다.

광산구는 지난 22일 유성에서 여성부 주최로 열린 '여성권익증진 사업 워크숍'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여성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2008년 여성정책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됐으며 지난달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최초로 전갑길 구청장이 우리나

라 최대 민간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화중)로부터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여했다.

광산구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아동·여성보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는 '아동·여성보호 지원연대'를 창설했다.

'아동·여성보호연대'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를 구축해 아동 및 여성권의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rtee@

“정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신임 김용호 한전 장흥지점장



“안전적인 전기공급과 고객만족을 위한 현장중심 업무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신임 김용호(53) 한국전력 장흥지점장은 “장흥지역 장거리 배선선로의 취약성을 감안해 정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순 출신인 김 지점장은 국민

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81년 한전에 입사해 광산지점 영업부장, 곡성지점장, 전남지사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병숙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취미는 등산. /정흥=김용기기자 kykim@

서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힘 모은다

전남 8개시·군 팸투어 등 실무 논의

전남 서남해안권 자치단체들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목포시와 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완도·강진군 등 서남해안권 8개 시·군 관계자들은 최근 해남에서 서남해안권 관광발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관광광역화를 통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동 팸투어를 실시하고 시·군 순회 관광객들에 대한 요금 할인제 도입 등 구체적인 관광활성화 대책이 논의됐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은 서남해안권 관광광역화를 앞당기기 위해 내년 3월 실무협의회에서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단체장 협약체결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지난 2006년 결성된 서남해안권 관광발전 실무협의회는 그동안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관광발전 워크숍 개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공동 홍보 및 연 1회 공동 팸투어 실시 ▲인근 시군 관광 여행객들에 대한 유료 관광지 입장요금 할인 ▲서남 해안권 연계 시티투어 운영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리첸 RITCHEN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회 OPEN

062515-2222

novita

신뢰할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비데프라자

062515-1144